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 사료정보 콘텐츠 구축

글 · 심성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ssb@dssb.pe.kr

사업회 사료관이 고객을 찾아 나서며 수립한 전략은 사료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식별하고, 세분화된 고객을 집단별로 최적화된 내용과 형식으로 사료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확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그동안 수집·보존해오던 사료를 이용자가 좀 더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통일운동'과 '1970년대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사료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약 70만 건의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관리·보존해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록물 관리 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함께 기록관리 문화의 발전을 선도해 온 기관이다.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료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흐름 가운데, 민주화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이며, 현대사를 이끌어온 우리 시민의 삶 가운데 변혁의 기억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름수록 사료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사료는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료를 관리하는 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료관은 사료를 정리하고 기본 정보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료를 활용하는 이용자 층도 주로 전문 연구자, 언론 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집단에 국한되어 있었다. 물론 이들 전문가들을 통해 연구와 활용이 활성화되기는 했으나, 사료관 사료와 일반인 사이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료관에서는 사료의 정리·보존을 수행하면서도 사료가 국민적 관심 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였다.

이 선행 사업으로 지난 2006년 말 한국국가기록원을 통해 '사료 콘텐츠 구축을 위한 모형 및 절차 개발'의 연구 용역 사업이 진행되었다. 연구 용역 사업 이후 사료관은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료정보 콘텐츠의 모형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사업회 사료관이 고객을 찾아 나서며 수립한 전략은 사료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식별하고, 세분화된 고객을 집단별로 최적화된 내용과 형식으로 사료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통일운동' 시작 화면. 문 목사의 방북 행적과 이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사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통일운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

이번에 구축한 사료정보 콘텐츠는 여러 집단 가운데, 사료정보를 필요로 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1970년대 노동운동’ 시작 화면. 당시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할 수 있는 노래와 시, 김경숙 열사의 일기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1970년대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있다. 주요 대상은 고등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과 교사인데, 교육통계(2006년)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81만여 명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28만여 명으로 사회과 선택 과목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는 6천 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콘텐츠는 여타 중·고등학생의 학습과 사회단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잠재 고객인 학생과 교사가 자료관의 자료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자료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첫째, 교과서를 분석하고 자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교사와 학생의 질 높은 자료 학습을 보장할 수 있고 자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특징이 심분 발휘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근·현대사 6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과 내용 중 ‘통일정책·남북교류’ 관련 단원을 인물 학습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1970년대의 경제 성장·사회 변화’ 관련 단원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1970년대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 두 주제는 문익환 목사의 친필 사료와 동영상, 김경숙 열사의 일기와 남영나이론 노동자의 유인물 등 사업회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값진 사료들이 활용될 수 있는 주제였다.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 이외에도 통일맞이,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단체와의 협력도 구축되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교사가 곧바로 수업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학생은 교실 수업이 아니라 수행 평가나 특별 활동 시간에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과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수업의 흐름에 따라 콘텐츠를 구성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도 도입 단계에서 활용되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치(핵심 질문, 사례 연구·활동, 용어 사전, 학습 활동지 등)가 사용된 것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셋째, 현직 역사 교사가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자료관의 역량이 적극 투여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가 주제 설정에서부터 화면 구성에까지 깊숙이 참여하였고, 사업회 자료관에서는 소장 사료의 발굴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점검·보강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읽기 자료’라는 이름으로 사료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읽기 자료’는 자료 속의 문자만을 뽑아서 제공하고 있을 뿐, 자료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료정보 콘텐츠는 학교현장에서의 자료 학습이 개선되는 데 중요한 시도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관에서 이번에 구축한 자료정보 콘텐츠 모형을 초기 버전의 형태로 웹 서비스([http://](http://contents.kdemo.or.kr/)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 김경숙 열사의 일기가 활용되는 화면. 학생 스스로 일기를 읽고 자기 주도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contents.kdemo.or.kr/)하고 향후 학생·교사 등 사용자가 실제 수업에서 자료 정보 콘텐츠 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점,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과 추가 요구 사항은 이미 구축한 자료정보 콘텐츠의 중점 보완 사항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구축의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정보 콘텐츠는 점차 장점은 보강되고 단점은 보완되어,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체계화되어 효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는 제공받는 주체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할 때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임을 지켜지기를 바라며, 자료정보 콘텐츠의 확대 개발이 자료관리의 심화 발전과 병행되기를 바란다.

글·심성보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함세웅 이사장, 유가협 회원들과 간담회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지난달 19일(화) 유가협 회원 30여명을 사업회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함세웅 이사장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들의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도 유가협과 사업회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회 영문 로고와 조합형 심볼 신규 개발

사업회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문 로고체와 조합형 시그니처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영문 로고와 심볼 조합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협력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로고는 사업회 C.I의 기본 색상을 기조로 서체에 회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한국민주화운동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사업회 심볼(무리지어 달리면서 춤추는 해방의 기쁨을 나타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영문 로고 기본형



로고 심볼 조합형

사업회 홈페이지 새롭게 개편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사업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작한 통합개편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 1일(토)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

경영공시·한국민주화운동 연표·사건·사진·동영상·자료실 등의 내용 확충, 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 확대,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참여 공간 마련, 쌍방향 회원 맞춤 서비스 기능 등을 개선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번 홈페이지는 한국민주주의 전담 범국민추진위원회 사이트와 사료 검색 사이트가 통합되어 서비스 된다. 사업회는 개편된 웹 사이트를 시험 공개한 후 이벤트와 테스트 기간을 거쳐 지속적인 개발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업회 홈페이지 www.kdemocracy.or.kr

‘시대의 불꽃’ 시리즈 17 계훈제 편 『역사를 딛고 선 흰 고무신』 발간



사업회 홍보팀은 열사전집 ‘시대의 불꽃’의 17번째 권으로 계훈제 선생의 생애를 담은 『역사를 딛고 선 흰 고무신』(최용탁 지음, 오름출판사, 6,500원)을 발간했다.

책의 주인공 계훈제 선생은 백기완

선생, 문익환 목사와 더불어 재야의 3인방으로 불리며,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인물이다. 허름한 검정색 바지에 작업복 윗도리, 낡은 바바리코트에 예의 그 흰 고무신을 신고 우리 사회의 민주와 자유, 평등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이번에 발간한 『역사를 딛고 선 흰 고무신』은 계훈제 선생에게 ‘저항’의 의미를 일깨워주었으며 장준하 선생과 인연을 맺게 되었던 신성학교 시절, 죽음의 문턱까지 넘나들었던 투병 생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독재정권과의 투쟁 등 선생의 전 생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특히 계훈제 선생이 <씨울의 소리>

1977년 3월호에 게재했던 글 ‘어느 저항인의 하루’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계훈제라는 한 인물과 그가 가졌던 사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훈제 선생을 생각하면 항상 같이 떠오르는 것이 ‘흰 고무신’이다. 이 ‘흰 고무

신’이 평생 청빈함과 무소유, 저항성과 주체성을 견지했던 계 선생의 삶과 사상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이 평생 저항의 끈을 놓지 않고,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켰던 그의 삶과 뜻을 널리 알리고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대의 불꽃’ 시리즈는 민주화 과정에서 자신의 한 몸을 바친 열사와 억압에 스러져간 희생자들의 삶과 투쟁,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발간해왔으며, 현재 17권이 출판되었다.

국제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국제 자문회의 개최



새롭게 시작되는 기념사업회 국제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내외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일(토)부터 3일(일) 양일 동안 <국제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 서대문 바비엠티 스위트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브루노 카오프만(IR-Europe대표, 스위스), 킨히데 무사코지(오사카 대학, 일본)등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 10인과 이삼열(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등 국내 주요 인사 그리고 윤순녀(천주교성폭력상담소), 이학영(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사업회 이사진과 임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2일(토)은 해외 참가자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다. '민주주의의 심화'(브루노 카오프만), '국가기관을 통한

국제협력사업의 다양한 방법'(노만 쿡), '일본의 ODA운동 실태'(오하시 마사키)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관련 국제 협력의 방향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날인 3일(일)에는 기념사업회의 국제협력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응답 및 제언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국제자문회의 조직위원장 이정옥 교수(대구 가톨릭대)가 지난해 연구팀을 조직해 마련한 기념사업회 국제협력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참가자들은 기념사업회의 기초와 방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국제협력사업 자문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민주주의 현장체험 진행

교육사업팀은 다음달 7일(월)부터 오는 10월 31일(금)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체험 -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민주주의 현장체험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민주주의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의 현대사를 이해하고,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생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민주주의 현장체험은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 현대사 부분



에 나오는 1987년 6월항쟁과 관련된 장소인 '서울시청 광장', '이한열기념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민주주의 현장 방문을 통해 현대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현장에서 느낀 점을 '민주주의 마인드 맵' 활동을 통해 정리, 발표하면서 올바른 비판 의식과 토론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이며, 1회 진행 시 한 학급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 신청은 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cracy.or.kr)나 이메일(76cooler@kdemo.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교육사업팀 02-3709-7569

민주시민교육 부산 지역 간담회 개최

교육사업팀은 지난달 13일(수) 부산민주공원과 함께 부산교육연구소에서 민주시민교육 부산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부산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황한식 부산대 교수를 비롯해 교육관련 전문가,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시민들에게 일터와 삶터를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나가자"며 지역교육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 참가자들과 함께 협의했다.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시스템 완료보고회 개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된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 완료보고회가 지난달 15일(금) 사업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기존의 사용자 서비스를 개선하여 검색 편의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은 약 2주 동안의 내부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주요 개선 내용

1. 사료 목록, 문서 원문, 사진 원문에 대한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

2. 이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새로운 원문 뷰어 적용
3. 검색 단계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검색 효율 향상
4. 사진에 대한 대표화면(Thumbnail)을 목록단계에서 제공하여 이용자 식별성 강화
5.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해제 추가를 통한 이용자 이해 증진
6. 사료에 대한 간략 정보와 표준기술 정보인 ISAD(G)의 분리 제공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시스템은 올해 추진 예정인 '사료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적인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아시아와 한국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 조희연, 박은혜 편

지난 1997년 문화위기에서 경험한바와 같이 동아시아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범주가 아닌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공간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해 위에서 각국에서 민주주의 문제와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형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